

미 증시, 지표 부진, 금융섹터 불안으로 경기 침체 부각되며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지표 부진과 금융섹터 불안으로 경기 침체 부각되며 하락

•미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32.80%)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으로 은행주 급락으로 부진. 특히 관련 이슈와 경제지표 둔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점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 이런 가운데 SVB 파산보호신청을 발표하자 금융주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대차대조표가 강하고 경기 침체에 탄력적으로 간주되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다우 -1.19%, 나스닥 -0.74%, S&P500 -1.10%, 러셀2000 -2.56%)

특징 종목: 금융주, 자동차 부진 Vs. MS, 엔비디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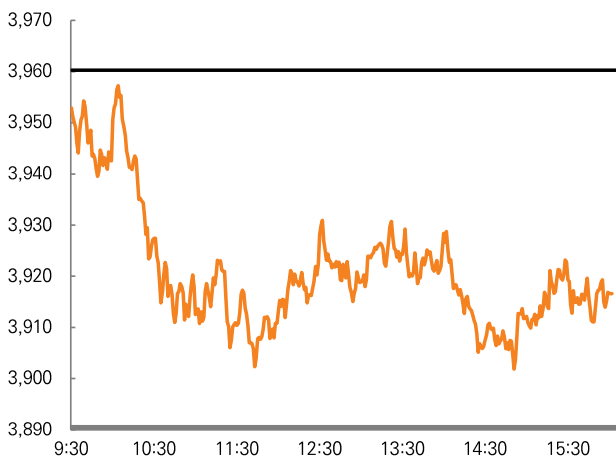
•퍼스트 리퍼블릭(-32.80%)은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재기되자 급락. 더불어 주식을 매각해 현금 조달할 계획이 알려지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뢰 회복에는 부족. 여기에 SVB의 파산보호 신청과 나스닥이 SVB 상장폐지를 발표하자 급락. 반면, 엔비디아(+0.72%)는 AI 산업의 수혜를 감안 투자이건 상향 소식에 상승. MS(+1.17%) MS 오피스와 ChatGPT의 결합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속 판매 촉진 가능성이 부각되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경기 침체 우려 속 업종 차별화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22%, MSCI 신흥 지수 ETF는 0.6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8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금융주 급락 여파로 부진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이러한 금융업종의 리스크 확대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부담. 이는 결국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증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AI 관련 기업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7% 하락에 그치는 등 기술주가 강했던 점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내외 하락 출발 후 경기 침체 이슈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높은 가운데 업종 차별화 속 견조한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95.69	+0.75	상해종합	3,250.55	+0.73
KOSDAQ	797.39	+1.97	홍콩항생	19,518.59	+1.64
DOW	31,861.98	-1.19	베트남	1,045.14	-0.22
NASDAQ	11,630.51	-0.74	유로스톡스 50	4,064.99	-1.26
S&P 500	3,916.64	-1.10	영국	7,335.40	-1.01
캐나다	19,387.72	-0.77	독일	14,768.20	-1.33
일본	27,333.79	+1.20	프랑스	6,925.40	-1.4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미국발 경기 침체 ② 지역 은행 부진

미국 2월 경기 선행지수는 1월에 이어 전월 대비 0.3% 하락. 특히 하락 기간과 깊이에 대한 6개월간의 변화율 측정 값이 -4.2%를 하회해 임박한 경기 침체 신호를 제시. 물론 과거에 비해 깊이가 크지 않아 연착륙 가능성이 높음. 미국 2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에서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음.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소비재가 전월 대비 0.5% 감소에서 0.1% 증가했으나, 대부분 둔화되거나 제한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공장 가동률 또한 78.0%에 그쳐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

한편, 3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67.0에서 크게 둔화된 63.4로 발표. 현재 경제 상황이 70.7에서 66.4, 기대지수도 64.7에서 61.5로 위축. 이번 조사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전에 거의 마감했기에 향후 확정치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1에서 3.8로 둔화되었으며 5년 인플레이도 2.9%에서 2.8% 하락.

경제지표가 전월 대비 위축된 가운데 금융섹터 문제가 향후 반영되면 더욱 경제지표 둔화 가능성이 높아 미국 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짐.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어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금 가격도 급등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퍼스트 리퍼블릭(-32.80%)에 대한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자 금융주 전반에 걸쳐 하락. 특히 빌 에크만 등 일부 투자자들은 대형 은행들의 지원이 결국 문제가 진행될 경우 대형 은행들로의 전염 확산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 더불어 SVB 파이낸셜이 장중 파산보호 신청을 발표하고 나스닥은 SVB의 상장 폐지를 통보하자 관련 우려가 더욱 확대.

이런 가운데 주말에는 미국 중형은행 연합이 FDIC에게 모든 예금을 2년 동안 보장하도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관련 서한에서 이번 사태가 은행 업계는 일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가 사태 해결에 중요.

한편, 주요 은행들이 CS와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CS(-6.94%)는 하락.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규모 지원을 발표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신뢰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는 CS에 대해 UBS(-5.50%)로의 합병을 위해 강하게 UBS를 압박하고 있음. UBS는 인수를 위해 스위스 정부로부터 약 6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구하고 있으며 인수 협상은 주말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자동차 부진 Vs. AI 관련 대형주 강세

퍼스트 리퍼블릭(-32.80%)은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재기되자 급락. 더불어 주식을 매각해 현금 조달할 계획이 알려지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뢰 회복에는 부족. 여기에 SVB 파이낸스가 파산보호 신청하고 나스닥은 SVB의 상장폐지를 발표하자 웨스턴 얼라이언스(-15.14%), 코메리카(-8.44%), 이스트 웨스트(-6.46%) 등이 급락. 한편,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 문제가 확대될 경우 지원한 JP모건(-3.78%), BOA(-3.97%), 웰스파고(-3.92%) 등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대형 은행주도 부진.

경기 침체 우려로 캐터필라(-1.69%) 등 기계업종, 허니웰(-2.38%) 등 산업재, 엑손모빌(-1.18%) 등 에너지 업종, 벌칸 머티리얼즈(-3.12%) 등 건축 자재 업종 등이 부진. GM(-3.55%), 포드(-4.40%), 폭스바겐(-3.96%) 등은 중국 판매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자 하락. 메타 플랫폼(-4.55%)은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수익 급감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엔페이즈 에너지(-3.36%)와 솔라엣지(-6.43%) 등은 금융 불안으로 대출 감소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 우려로 하락.

반면, 엔비디아(+0.72%)는 AI 산업의 수혜를 감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상승. AMD(+1.28%), 마이크론(+0.16%) 등도 동반 상승. MS(+1.17%) MS 오피스와 ChatGPT의 결합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속 판매 촉진 가능성이 부각되자 상승. 알파벳(+1.38%)도 강세. 페덱스(+7.79%)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급등. 뉴몬트(+5.22%)는 금 가격 급등에 힘입어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15	대형 가치주 ETF (IVE)	-1.59
클린테크 ETF (CTEC)	-4.11	중형 가치주 ETF (IWS)	-2.08
소매업체 ETF (XLY)	-1.28	소형 가치주 ETF (IWN)	-3.01
온라인소매 ETF (EBIZ)	-1.08	대형 성장주 ETF (VUG)	-0.59
미국 인프라 ETF (PAVE)	-2.40	중형 성장주 ETF (IWP)	-1.67
핀테크 ETF (FINX)	-1.34	소형 성장주 ETF (IWO)	-2.2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0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19
클라우드 ETF (CLOU)	-1.3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4
사이버보안 ETF (BUG)	-0.6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64	미국 국채 ETF (IEF)	+1.1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45	하이일드 ETF (JNK)	-0.60
바이오섹터 ETF (IBB)	-1.77	신흥국 채권 ETF (EMBD)	0.00
로봇&AI ETF (BOTZ)	-0.96	물가연동채 ETF (TIP)	+0.21
반도체 ETF (SMH)	-0.5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500.96	-0.11	+5.66	+2.56
커뮤니케이션	182.56	-0.48	+6.94	+1.27
필수소비재	750.63	-0.60	+1.28	-2.47
유틸리티	337.87	-0.98	+3.89	-2.59
경기소비재	1,097.67	-1.24	+2.35	-6.14
헬스케어	1,462.81	-1.26	+1.31	-4.81
에너지	584.64	-1.53	-7.02	-9.25
소재	474.00	-1.54	-3.51	-7.42
산업재	815.00	-1.63	-2.45	-6.40
부동산	226.38	-2.27	+0.08	-9.05

금융	513.02	-3.29	-6.09	-15.10
<hr/>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경기 침체 우려 속 부진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22%, MSCI 신흥 지수 ETF는 0.6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6.8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금융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나스닥이 2.48%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더불어 중국 증시가 중국 경기 회복 및 상무부의 소비 촉진 촉구 등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인 영향. 특히 여러 호재 속 반도체 업종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급등한 점이 긍정적. 다만,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2차 전자 업종은 유럽의 에너지법 초안 발표를 이유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한 점도 특징. 결국 KOSPI는 0.75%, KOSDAQ은 1.97%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금융주 급락 여파로 부진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이러한 금융업종의 리스크 확대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부담.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NDF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국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증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AI 관련 기업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7% 하락에 그치는 등 기술주가 강했던 점은 긍정적. 다 나아가 주말에 미국 중견 은행 협회의 은행 건전성 발표, CS와 UBS 합병 협상 등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월요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내외 하락 출발 후 경기 침체 이슈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불안 등으로 부진 예상. 다만,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높은 가운데 업종 차별화 진행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제지표 둔화

미국 2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나 예상치인 0.4%와 달리 전월 대비 변하지 않음. 제조업 생산도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1.3% 증가를 하회한 0.1% 증가에 그침. 공장 가동률도 78.0%를 기록해 지난달과 변함이 없었으나 예상치인 78.5%보다는 부진

미국 3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67.0을 하회한 63.4로 발표

미국 2월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하락에 이어 0.3% 하락을 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국채 금리, 경기 침체 우려 및 FOMC 앞두고 급락

국제유가는 금융업종 불안이 지속된 가운데 이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 축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특히 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된 점도 유가 급락 원인.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날씨 등으로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급락. 유럽 천연가스도 재고 증가 및 강력한 풍력 발전 전망 등으로 하락.

달러화는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연준이 FOMC에서 매파적인 행보를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었음에도 외환시장은 FOMC에 주목하는 경향.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 약세에 기대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등은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에서 3.8%로 하향 안정을 보이자 급락. 특히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금리 급락 원인. 이 결과 단기물이 30bp 넘게 급락하는 등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및 FOMC 결과에 대한 전망 속 금리 급락이 진행

금은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급등.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 부각에도 달러 약세 및 중국 경기 부양의지 등에 힘입어 상승. 곡물은 은행 부문의 혼란에도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 수출 수요 증가로 상승. 밀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 관련 러시아가 기간 단축을 추진했다는 소식에 상승. 대두는 브라질산 콩의 대량 생산이 몇 개월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철근은 0.57%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6.74	-2.36	-12.96	Dollar Index	103.708	-0.68	-0.83
브렌트유	72.97	-2.32	-11.85	EUR/USD	1.0670	+0.57	+0.25
천연가스	2.34	-7.00	-3.79	USD/JPY	131.85	-1.41	-2.36
금	1,990.20	+2.60	+5.64	GBP/USD	1.2173	+0.53	+1.19
은	22.46	+3.55	+9.54	USD/CHF	0.9261	-0.34	+0.59
알루미늄	2,274.00	+0.29	-1.69	AUD/USD	0.6697	+0.62	+1.78
전기동	8,580.00	+0.73	-3.24	USD/CAD	1.3731	+0.07	-0.73
아연	2,895.00	+1.31	-1.43	USD/RUB	77.0122	-0.69	+1.16
옥수수	634.25	+0.24	+2.75	USD/BRL	5.2787	+0.91	+1.23
밀	710.50	+1.65	+4.60	USD/CNH	6.8861	-0.13	-0.77
대두	1,476.50	-1.01	-2.02	USD/KRW	1,302.20	-0.82	-1.66
커피	176.60	-1.92	-0.67	USD/KRW NDF1M	1,306.87	+0.59	-0.9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29	-14.84	-27.01	스페인	3.228	-15.50	-31.60
한국	3.405	+0.50	-17.70	포르투갈	3.034	-17.80	-35.00
일본	0.288	-2.70	-12.30	그리스	4.156	-13.70	-17.80
독일	2.108	-18.20	-40.00	이탈리아	4.054	-13.40	-26.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